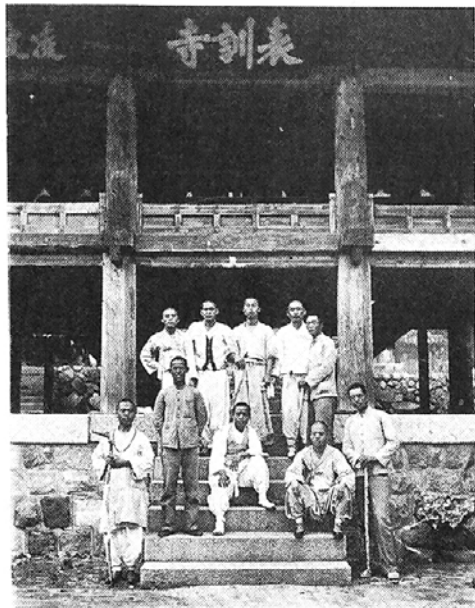


큰 스님 수행한담

한줌 재보다 더 허망



금강산 4층의 하나인 표훈사에서 도반들과 함께한 고승스님(맨 왼쪽 긴 나무지팡이 든 스님).

당시 오대산에는 방마다 운수납자가 넘쳐났습니다. 양식이 부족해서 늘 배고고왔는데도 수좌들은 마음에 불을 켜고 화두참구에 몰두했지요. 감자캐고 도토리 즐고 해서 큰 가마솥에 찌고 울귀서 감자밥, 도토리밥 많이 해먹었습니다. 당시는 굶지 않았으면 복이다 생각하고 방

에 있더라도 미움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자식까지도 별개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죽을 때는 돈 명예 자식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혼자라는 절대고독속에서 초월지를 얻는 자만이 법신을 얻어 불생불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 마하연에서는 오래 있었습니다. 그때 화용스님이 화엄경 입법계종의 53선지식을 비유해서 53칸의 절을 지었지요. 그때 마하연은 표훈사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만 대처승들이 선방을 만든다는 악축을 어기고 열불당으로 용도를 바꾸어 버렸습디다. 당시 한용운선사 등이 '천승만일회'를 조직해서 결국 재판도 하고 해서 대처승들을 축출했습니다. 만공스님이 첫 주지를 했습니다.

만공스님과 만해스님은 서로 호형호제하며 굉장히 친했습니다. 만해스님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친절하게 정진한 과거

“사랑속에 있더라도 사랑을 놓고 미움속에 있더라도 미움을 놓아 절대고독속에서 초월지 얻으십시오”

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이순간 여러 분은 성성하게 깨어 있습니까?

웬 꿈들이 그리 많았는지요? 부귀나 영화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말이지... 지나고 나면 한줌 재보다 더 허망한 것을 갖고 말입니다. 잠들게 되면 화두가 끊어진다고 해서 잠을 안자고 수행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 있기보다 현실에서 깨어있는 공부부터 하세요. 현실속에서는 영혼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잠속에서 깨어 있으려니 악몽만 꾸게됩니다. 현실에서는 백일공음, 꿈속에서는 악몽을 꾸는게 우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현실속에서도 꿈꾸고 잠속에서도 꿈꾸고 있으니 꿈속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백년을 사나 1초를 사나 똑같은 한 할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간 순간 깨어있으면 영원불멸하게 사는 겁니다.

본성은 하나인데 생각은 팔만사천 가지로 갈라집니다. 일체의 업을 쉬고 일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망념에 열이 빠지니 본성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객

그러자 다시 제자를 보내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에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노장이 이 질문에는 대답을 못했지요. 부모에게서 물받기 이전의 나의 참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눈앞이 보고 입없이 말하며 귀없이 듣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길다고 누가 말했던가? 가이 슬프도다 물 안넘어가면 끝인 것을.....

사람이 죽으면 입에 물을 떠 넣습니다. 물이 넘어가면 살거든요. 죽는 사람을 보면 숨을 할떡할떡거리다 끝이 납니다. 돈 오무생(窮苦無生)이라, 무생을 증득하려고 했어요. 생이 있으니 죽음이 있는 것이지요.

과거사로 출가한후 지금까지의 수행을 돌이켜보면 불교는 결국 생활선(生活禪)으로 귀착되는 것 같아요. 생활을 떠나 그것을 구하는 것은 마치 얼굴에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찾고자 해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백세든 90세든 똑같습니다. 먼저 난 것도 나중 난 것도 없고 다 한시간입니다. 내가 난것도 요시간이요, 내가 버린 시간도 요시간입니다. 가든 모든 죽든 살든 항상 요시간이라 1분도 틀림이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것이 무상한 줄 깨달아야 급한 줄을 알게 됩니다. 도를 구하는 자는 무상한 마음을 내고 급한 줄을 알아서 철저히 정진해야 하는 겁니다.

대홍열리방한풍(大紅裡放寒風)이라. 참으로 불생불멸의 도리를 확실히 깨우치면 불구덩이속에서도 서늘한 바람이 부는 큰 뜻을 알게 됩니다.

내방에 '일광동조(日光東照)'란 편액이 걸려있어요. 추사 선생 친필이요. <법화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해가 비추면 온 세상이 환해지듯 부처님의 가피가 인연있는 모든 것에 차없이 골고루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거울은 친소(親疏)가 없이 광등하다는 말입니다. 수행자들은 이렇게 일광동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야 합니다.

정리=이윤호 기자

“지금 제대로 못사니 과거·미래 돌아보죠 정성들인 음식 더 맛있는 이치 아십니까”

마다 화두 참구에 정진하던 수자들 모습이 오대산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그야말로 기한발도심(期發發道心) 배고프고 추울 때 구도심을 일으킨다는 뜻)의 치열한 구도정신이 반짝반짝하던 시절입니다. 사실 공부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머리에 불을 끄듯(頭頭放散) 급한 줄을 알고 열심히 정진해야 합니다. 자신의 머리가 불에 타고 있는데 불끄는 것 말고 딴 일에 정신을 팔 거를이 있겠습니까. 한 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구도정신의 자세입니다.

또 수행자는 모름지기 '눈먼 거북이와 다리를 저는 자라와 친할 뿐이다(盲龜跛鼈親)'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연속에 살면서도 모든 인연을 쉬고 내면참구에 전념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해야지요. 사랑속에 있더라도 사랑을 놓고 미움속

에 있던 것이 유난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편 망월사에서는 70여명의 기라성같은 수좌들이 모여서 30년 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중단되어 버려 아수라나 나나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어요. 몸 에 대한 애착이 지독합니다. 이것 때문에 불구덩이 속에서 서로 싸우고 아단입니다.

마음이 무한하듯 욕심도 무한합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心如水) 만나는 대상에 스며들어 융화되고 맙니다. 어느 한곳에 머물러 고이는 바 없도록 마음을 내십시오.

옛날에 수행이 깊은 것으로 소문난 노장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가 제자를 시켜 옷 한벌을 해 울렸지요. 그런데 노장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 입고나온 옷만으로도 남는다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 정도되는 것이지요. 안이비설신의 여섯손님이 곧 도적입니다. 도적놈 심부름 하다 평생 허송세월하고 맙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어요. 몸 에 대한 애착이 지독합니다. 이것 때문에 불구덩이 속에서 서로 싸우고 아단입니다.

마음이 무한하듯 욕심도 무한합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心如水) 만나는 대상에 스며들어 융화되고 맙니다. 어느 한곳에 머물러 고이는 바 없도록 마음을 내십시오.

옛날에 수행이 깊은 것으로 소문난 노장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가 제자를 시켜 옷 한벌을 해 울렸지요. 그런데 노장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 입고나온 옷만으로도 남는다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사찰, 법당의 음향시설. DX-707, TM-108, 유코전자. Includes images of microphones and speakers.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Includes image of a band and a list of symptoms.